

# U-Square 2007 벤처기업 실태조사서 발간 「벤처 52% ‘IT 핵심기술 보유’」

벤처기업협회(회장 백종진)는 벤처특별법 10년 연장('08~'17)에 따라 제2기 벤처 육성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2006년 경영성과, 경영상 애로사항, 한미 FTA 체결 등 세계 시장의 글로벌화가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등에 대한 「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」를 실시했다.

※ 이번 조사는 8월 13일부터 9월 20일 까지 총 37일에 걸쳐 2007년 8월 기준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리서치전문기관인 포커스리서치를 통하여 온라인조사로 진행되었으며, 2006년 연말결산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 벤처기업 경영현황을 조사함.

## 벤처기업 경영현황- 전년대비 매출 16.1%, 고용 15.8% 증가

조사에 따르면 '05년 벤처기업 매출액 평균은 6,390백만 원, '06년 벤처기업 매출액 평균은 7,42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6.1% 증가하였다. 당기순이익 역시 '05년 358.3백만 원, '06년 427.6백만 원으로 19.3%의 성장률을 나타냈다. 이는 외

경영성과							
(단위:백만 원)			(단위: %)				
구분	2005년	2006년	증가율(%)	구분	대기업 (제조업)	중소기업 (제조업)	벤처기업 설문 응답률 %
매출액	6,390	7,420	16.1				
영업이익	444.0	482.0	8.6	매출액 증가율	2005년 5.9	2006년 5.9	126
금융비용	103.0	147.7	43.3	매출액 대비	2005년 7.2	2006년 4.4	71
(이자비용)	1.6%	2.0%		영업이익률	2005년 6.0	2006년 4.3	6.6
당기순이익	358.3	427.6	19.3				

벤처기업의 경영성과      매출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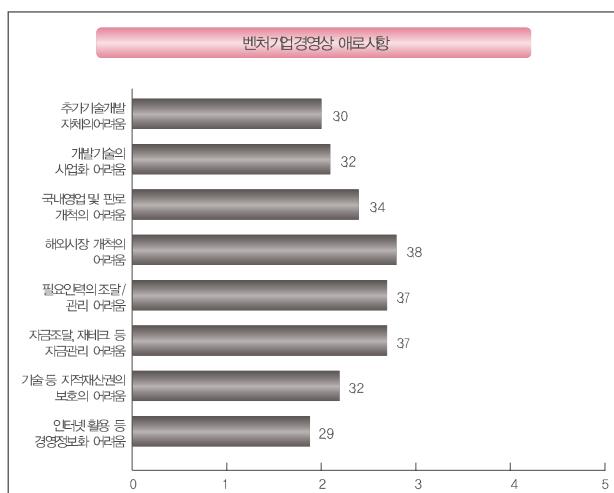
형적 성장은 물론 내적 역량도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 벤처기업(첨단·일반제조)의 매출액 증가율을 대기업(제조업) 및 중소기업(제조업)과 비교해 보면,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(14.1%)이 대기업(6.5%)과 중소기업(5.9%)의 평균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또한,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6.6%로 대기업

(6.0%) 및 중소기업(4.3%)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벤처기업의 '06년 평균 근로자수는 31.6명으로 '05년(27.3명) 대비 15.8% 증가하였고, 총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 수가 92% 이상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, 고용창출과 관련한 벤처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벤처기업의 인력 구성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생산 활동 부분에 인력(11.9명)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지나, R&D 인력(8.2명)이 25.9%로 전년도(6.8명)에 비해 인력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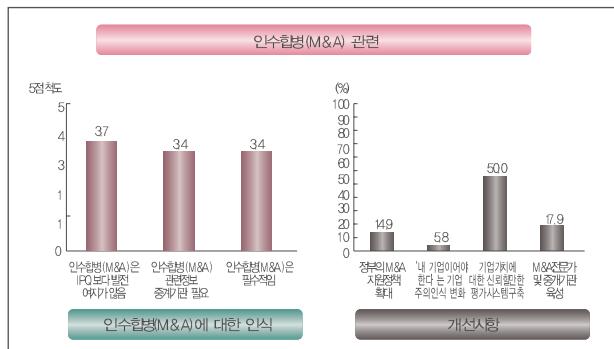
벤처기업의 대표적인 경영애로사항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가장 큰 어려움(3.8점)으로 나타났으며, 이어 필요인력의 조달/관리(3.7점), 자금 조달 및 자금 관리(3.7점), 국내 영업 및 판로개척(3.4점) 순으로 조사되었다.



### 벤처, 동종벤처기업간 M&A 가장 선호

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방안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M&A에 대해 벤처기업들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, 인수합병이 필수는 아니나 그 효과측면에서 IPO보다 긍정적이며, 정보증계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벤처기업들은 M&A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시스템 구축(50.0%)과 M&A 전문가 및 중개기관 육성이 전제(17.9%)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.



### FTA 체결은 벤처의 글로벌시장 적극 진출 기회로 인식

벤처기업의 FTA에 대한 주된 대응태도는 보다 적극적인 수출(49.9%)과 현지투자(42.4%) 등으로, 능동적인 성향을 보였으며,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FTA를 글로벌시장 개척을 통한 매출확대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졌다.

FTA체결에 따른 영향력이 큰 국가로 미국(66.4%)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어 중국(20.4%), EU(6.1%), 일본(3.1%) 순으로 조사되었다. FTA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한 기업 중 상위 5개 국가 모두 경제규모 수준이 높은 국가임을 감안할 때, FTA에 있어 강대국의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. 아울러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(민간/정부 협력중심의 조직·네트워크)의 필요성(78.7%)을 절감하고 있음을 나타냈다.

이번 「2007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」 결과는 벤처기업은 경영성과와 고용창출,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매출액의 성장만이 아닌 미래지향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또한 한미 FTA 체결 등 세계시장이 글로벌화 되고 있는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, 제2기 벤처 육성정책은 '벤처기업의 글로벌화'에 초점을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을 시사한다.

따라서, 제 2기 벤처 육성정책의 방향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기업 글로벌 경영지원 시스템의 준비와,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 기반 구축, 미국 SBIR 프로그램 진출 및 해외 벤처관련 기술정보 조사·분석 지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.

또한 벤처기업 M&A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 M&A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,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, 벤처기업 M&A 거래 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2008년 새해의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그것이 될 것이다.